contents

02
포토에세이
사진 | **안민승**



04
발행인의 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장 | **김성수**

05
금농人
금능어촌계 산하 금능어부회 조직
금능어부회를 아시나요
글 | **차영옥**



08
금농人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이윤영 회원 가족
나와, 금능과, 꿈과, 작은도서관, 이야기
글 | **홍임정**

12
금능 in
금능마을회관 및 부속건물 탐방
리민의 화합으로 비상하는 금능리, 그 시작점을 가다
글 | **이윤영**



18
금능인게
특집대담 세대를 이어가는 금능해녀를 만나다
오늘도 금능바당에 들엄수다
글 | **양민숙**



24
금능인게
10년째 이어진 사랑의 김장담그기 따듯하고 행복한 풍경
금능아주망들 김장하는 날
글 | **한명희**

28
금능인게
금능리 축구팀 제34회 한림읍민 종합체육대회 우승
꿈은 이루어진다
글 | **한명희**



32
금능인게
금능밥상
브로콜리가 특별해지는 순간
글 | **양민숙**



36
금능인게
우리마을 옛 사진전 금능리 대상 수상
사진은 그날을 말해주니까
글 | **한명희**

40
금능인게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이야기
글 | **최지은**



46
금능인게
키워드로 만나는 금능
정리 | **이윤영**

48
금능인게
2022 금능리 어촌테마마을 디카시 창작대회 수상작
글 | **편집부**



53
금능스케치
금능마을 조직도
제공 | **금능리**

54
금능스케치
금능마을 일정
정리 | **금능리**

55
금능스케치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일정
정리 | **편집부**



56
편집후기

금능色

안민승
화가·사진가

바람에 낡은 색깔과
바람에 낡지 않는 빛깔 사이,
금능色

하늘 위로 바람머리
곱게 날리고
땅 밑으로 바람뿌리
짙게 내리면

사람 머금은 젖은 바람
바람 머금은 젖은 사람

바람에 색이 있다니
여기, 금능色

5 .indd 2 2023-02-20 6:10:24



5 .indd 3 2023-02-20 6:10:25

우리의 기록이 마을을 성장시킵니다

발행인 | **김성수**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장)

<금능인 5호> 발간을 하면서 '기록이 쌓여 시간을 만들고 역사를 만든다.'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올해도 금능리의 다양한 모습과 금능사람들의 정을 담았습니다. 소소한 것들의 기록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마을의 커다란 힘과 재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이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를 잇는 금능리해녀들의 모습은 제주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었고, 한림읍체육대회에서의 축구 우승은 금능청년들의 패기와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촌테마마을조성사업'도 금능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있으며, 청·부녀회의 어르신공경과 마을사랑은 타 마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랑을 받으며 함께 마을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바로 옆집 삼촌들의 이야기가 이번 <금능인 5호>지면에 따뜻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도 도서관 문을 활짝 열고 마을리민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성장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능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도서관에는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능인 5호>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마을,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 .indd 4 2023-02-20 6:10:26

금능어부회를 아시나요

금능어촌계 산하 금능어부회 소개

글·사진 | **차영옥**

금능어촌계 산하 금능어부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금능어촌계 산하 금능어부회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5 .indd 5 2023-02-20 6:10:27

오래 전부터 금능어부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이름을 들어보면 어업에 관련된 조직인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어촌계 사무장으로 입사를 했을 당시에도 금능어부회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이름만 남아 있는 단체였다.

그런데 점점 금능포구에 다른 지역 어선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부터 어항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어촌계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차에 홍준희 어촌계장이 금능리에 거주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금능어부회를 조직해 포구 및 어항 관리와 무분별한 어선 정박을 제재하기 위해 조직을 주도했다. 그전에 이미 금능어부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운영에 관해서는 다들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기에, 금능리에 거주하면서 어선을 보유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하면서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2021년 10월 24일 정식으로 금능어부회를 조직했다.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남아있던 금능어부회를 활성화시키는 첫 활동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을 정비하는 일이었다.

우선은 금능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 기존에 어선을 정박해 놓았던 어선 주인들을 만나, 금능어부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수락한 분들은 금능어부회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였고, 수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선을 금능포구에 정박할 수 없게 양해를 구해서 무분별하게 정박해 있던 어선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하였지만, 다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서 좋게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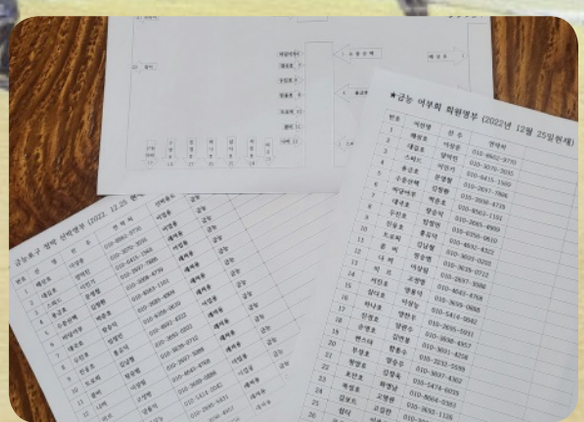


5 .indd 6 2023-02-20 6:10:27

그래서 2022년 12월 말 현재 27명의 회원들이 금능어부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초대회장으로는 '해상호' 이상준씨가, 총무는 '삼다호' 이상능씨가 금능어부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에 최선의 노력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금능어부회는 조직결성과 동시에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어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쓰레기로 넘쳐났던 포구나 어항이 정기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지속적인 관광객들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요즘 금능어부회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이 생겼다. 깨끗한 이미지 때문인지 캠핑카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불 사용 및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빈번해져서 어촌계와 행정당국에서도 민원 처리에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금능포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세한 일과 어항 관리를 금능어부회 이상준 회장이 해주고 있어서 금능어촌계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금능어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이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도 회원들과 의논하여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은 포구나 어항이 깨끗해야 많은 분들이 금능리를 찾아 줄 것이므로 청정한 바다환경을 만드는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비록 지금은 육상에서만 환경 정화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능어촌계와 함께 수중정화활동도 함께 전개하여 청정한 바다, 깨끗한 포구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면서 더 발전하는 금능어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도 금능포구와 어항 관리에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래본다. 人·IN





5 .indd 7 2023-02-20 6:10:27

나와, 금능과, 꿈과, 작은도서관, 이야기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이윤영 회원 가족

글 | **홍임정** · 사진 | **양성혁**

이윤영 회원이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을 처음 찾은 날을 기억하고 있다. 도서관이 옛 리사무소 건물 2층에 터를 잡고 있던 시절, 그녀는 큰 딸 지원이(당시 7세)의 손을 잡고 낡은 계단을 올라와 도서관 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마을 안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수줍게 웃었다. 그동안 육아에 전념하느라 집밖을 나온 건 거의 처음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뱃속엔 다시금 육아에 전념해야 할 또 하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에 그녀와의 첫 만남을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도 이 작고 낡은 공간이 특별하게 여겨졌는지, 그녀가 꿈차롱도서관을 다시 찾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마침 그날엔 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의 훈풍에 도서관 실내에 놓아두었던 큰 화분들을 밖으로 꺼내놓고 있었는데, 무겁고 힘든 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럼없이 다가와 화분을 번쩍 들며 혼자선 버거웠던 봄맞이 일거리를 흔쾌히 도와주었다. 아마 그것이 그녀가 꿈차롱도서관의 일이라면 언제라도 아이들과 함께 달려와 주는 나날들의 봄새싹과도 같은 시작이었을 것이다. 이후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첫 인사는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선생님?"이었고, 그런 그녀의 곁엔 언제나 지원이(큰 딸), 지승이(큰 아들), 희선이(둘째 딸)이 '뭐 도와줄 거 없어, 엄마?'라는 듯한 표정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희수(막내 딸)에 관해서라면 그녀가 화분을 번쩍 들어주던 그날부터 그녀의 뱃속에서 보고 듣고 있었으니, 이윤영 회원 가족은 명실공히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1등 자원봉사자 가족이다. 도서관이 그녀와 인연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마술상자를 한아름 안고 도서관에 나타난 그녀의 남편 양성혁 씨도 물론 빼놓을 수 없다.

이 지면은 원래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대표적인 자원봉사자 가족으로서 이윤영 회원 가족이 그동안 해왔던 봉사활동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의 모든 애씀과 수고로움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거니와 도서관을 위해 달려와주었던 발걸음들을 경중을 따져 요약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신에 이번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뭐 도와줄 거 없어요?" 하는 질문을 듣기 전에 "당신들의 마음 속엔 뭐가 있나요?" 하고 먼저 물어보려고 한다. 이윤영 회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게 금능마을은 어떤 의미인지, 차롱에 꿈을 담는다는 뜻의 꿈차롱 이름처럼 마음에 담고 있는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그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봉사의 싹은 어떤 방식으로 움이 트는지를 귀기울여 듣고 싶다. 나와, 금능과, 꿈과, 작은도서관 이야기다.



나와,

청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꿈차롱도서관으로 달려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주제는 '나'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가요? '내가 말하는 나' 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영 저부터 말할까요? 저는 제 자신을 오뚝이라고 생각해요. 제 좌우명이 '살아있는 한 도전하라'거든요. 도전하고 경험하고, 그러다 쓰러지고 좌절해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또 도전하고 경험하고. 여태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오뚝이의 중심축처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마음의 중심축은 언제나 저희 엄마였어요. 타지인으로서 제주에 내려와 홀로 3남매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꿋꿋한 모습과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이웃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것이 제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것 같아요. 엄마라는 중심축을 마음에 두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게 스스로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에요.

양성혁 저는 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에 학교 선생님께서 덕을 쌓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항상 마음 한켠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덕을 쌓아야 내 가족이, 내 후손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원담의 돌을 쌓듯 하나하나. 제가 새벽마다 금능바다에 나가서 원담을 정비하는 것도 다 그래서죠. 원담이 무너지지 않게, 혹은 사람이 다치지 않게 돌을 쌓으면서 덕을 쌓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원담을 도화지 삼아 돌로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취미에 빠졌지만요.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날아오는 누군가에게 작은 즐거움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덕을 쌓고 싶어요.

양지원 저는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제 자신에 대해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일기장도 학교 일기장과 집 일기장이 따로 있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집에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를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기분과 느낌들을 다 남기고 싶거든요. 물론 사진도 열심히 남기고요. 셀카든 풍경이든 가리지 않고 기록해요. 제가 이렇게 기록하는 걸 즐기는 것은 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자신에 관해서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놓고 싶어요. 먼 훗날엔 저에 대한 기록물들이 저보다 더 잘 저를 설명할 수 있겠죠.

–

금능과,

두번째 주제는 '금능마을'입니다. 제주만큼 고향마을이 삶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지역은 아마 없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금능'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양성혁 저는 금능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금능의 모습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어요. 또 그만큼이나 현재 너무나 많이 변한 금능의 모습이 아쉽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 금능은 다 비포장도로였어요. 밭에 갈 때도 구르마를 타고 다녔죠. 지금은 아마 상상하기 힘든 풍경일 겁니다. 또 친구들과 총싸움 칼싸움 하며 놀던 것들도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친구들은 금능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것 또한 아쉽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 금능에 대한 아쉬움 뿐이네요. 어린시절부터 자라온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겠지요. 젊은 시절에 직장을 다니느라 객지 생활을 해봐서 그런지 저는 고향 금능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이윤영 저에게 있어서 금능은 우물 같은 존재에요. 저는 어릴 때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로 이주했는데요. 처음엔 밤이면 불빛 하나 없는 우물같이 컴컴한 금능을 빠져나오고

5 .indd 9 2023-02-20 6:10:30

싶어 매일밤 울기도 했어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마을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금능 토박이인 남편을 만나 금능사람이 되었는데요. 타지인으로 살 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던 마을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품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금능은 저에게 있어 우물, 그러나 빠져나올 수 없는 컴컴한 우물이 아닌 퍼내도 퍼내도 생수가 솟아나는 새로운 우물이 되었어요.

양지원 어릴 때 저는 금능이 참 작게 보였어요. 어서 빨리 커서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자라니 금능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산책을 좋아해서 마을길을 종종 걷는데, 어릴 때부터 다니던 낯익은 길은 반가워서 좋고 새롭게 생긴 길이나 공간을 발견하면 흥미로워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금능은 낯설지 않으면서 낯선 곳, 낯설면서 낯설지 않은 곳이에요.

–

꿈과,

세번째 주제는 '꿈'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꿈이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 꿈,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꿈차롱 이름처럼 차롱 가득 담아서 들려 주세요.

양성혁 고등학교 때 서울로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제주에서 왔다니까 일터의 형님이 서울랜드를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그걸 본 이후로 저는 제주에도 서울랜드 같은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점점 잊혀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지원이가 "아빠는 꿈이 뭐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때 다시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을 제주에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하고요. 지금은 제주 땅값이 많이 오르고 여러모로 어렵겠지만 아직도 유효한 제 꿈입니다. 소박한 금능랜드라도 좋아요. 앞에는 비양도와 금능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한라산이 보이는 곳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고 싶어요.

양지원 저는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아요. 우선 그리스여행을 꼭 한 번 가고 싶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예를 들면 '여자친구' 같은 아이돌도 만나보고 싶고요.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에 출연했던 일본 배우들도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직업으로 갖고 싶은 꿈은 처음엔 성우였다가 지금은 소설가로 바뀌었어요. 성우와 소설가 둘 다 그것들을 접했을 때 생긴 꿈인데요. 성우는 명탐정 코난을 보다가 저런 애니메이션에 내 목소리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었고요, 소설가도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재미있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꿈으로 갖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기록하는 걸 좋아하니까 소설가라는 직업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윤영 젊은 시절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결혼과 육아로 이룰 수 없었죠. 그랬던 저에게 처음으로 선생님의 역할을 맡겨준 곳이 꿈차롱도서관이었어요. 책놀이, 역사 수업 등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 하는 호칭을 들으니 꿈을 이룬 것 같아 너무 기뻐요. 지금은 또 돌봄전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으니 저는 젊은 시절의 꿈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제게는 먼 훗날 이루고 싶은 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름 아닌 금능마을 도슨트예요. 일주도로변에 있는 저희 집을 거점삼아 그곳을 역사관처럼 꾸며놓고 금능마을의 역사를 들려주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는 것을 지금부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꿈꾸고 있답니다.

–

작은도서관과,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네요. 도서관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온 가족으로서 꿈차롱도서관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5 .indd 10 2023-02-20 6:10:30

이윤영 저에게 있어서 꿈차롱도서관은 동굴이에요. 저를 품어주고, 쉬게 해 주고, 지지해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곳. 이곳에 오면 언제나 힘을 얻어요. 제 좌우명이 '살아있는 한 도전하라'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 꿈차롱도서관이에요. 집안에 틀어박혀 육아만 하다가 처음 밖으로 나왔을 때 만난 곳도 이 도서관이었고, 이곳에서 여러가지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세상에 나올 힘을 기를 수 있었고, 결국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한 도전하는 내가 금능에서 꿈을 키우는 동굴이 바로 이 꿈차롱도서관입니다.

양성혁 저는 꿈차롱도서관이 친구 같아요. 만나면 반갑고 좋은 친구. 어릴 적 마을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던 기억들이 많아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친구네 집처럼 언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함께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 처음 꿈차롱도서관을 알게 되었을 때 어릴 적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마음에 장난감 상자를 가지고 놀러가듯 마술상자를 한아름 들고 가서 변변찮은 마술실력일지라도 허물없이 뽐내 보았던 거지요.

양지원 저는 7살부터 꿈차롱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해 최근 문학창작 수업까지, 어린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의 이곳에서 뭔가를 배우며 자라왔던 것 같아요. 어쩔 땐 빡빡한 도서관 수업들이 버겁기도 하고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학교에서 너무 당연한 상식을 모르는 친구를 보면서 '저 애는 왜 저걸 모르지?' 하다가, '그럼 나는 어떻게 알았지?' 하고 반문해보면 대부분 도서관에서 배웠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차롱도서관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 지금의 특별한 나로 성장시켜준 무척 고마운 곳이에요.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나', '금능', '꿈', '도서관' 등 각각 다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구슬을 잇는 하나의 실처럼 가족 각자의 마음마다 자신에게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심지가 보였다. 양성혁 씨에게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쌓는 것', 이윤영 씨에게는 세상을 끊임없이 대면하며 '일어서는 것', 양지원 학생에게는 배우고 느낀 것들을 '남기는 것' 이 중심에 있었다. 그 심지가 꿈차롱도서관의 불씨를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니 어느덧 늦은 밤이다. 하지만 꿈차롱도서관이 불을 환하게 밝히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이다. 나와, 금능과, 꿈과, 도서관이 모두 심지를 켜고 환하게 빛을 발하는 시간이다. 人·IN



리민의 화합으로 비상하는 금능리, 그 시작점을 가다

금능마을회관 및 부속건물 탐방

글 | **이윤영** · 사진 | **양성혁**

마을 會館이란 마을 사람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비를 갖춘 건물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집회나 회의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말이다. 금능마을회관은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주민들이 모여 잔치도 열고,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결정하고, 일상적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정보를 나눈다. 마을회관은 마을 자치와 공동체 활동이 실현되는 장소인 것이다.

'금능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LED 불빛이 반짝거리고, '은빛 모래 속에 쪽빛 바다를 품은 금능리'라는 글자가 금능 마을회관의 첫인상이다. 금능 해변은 많은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장소이고, 많은 관광객이 놀러 오는 최고의 해변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금능마을로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금능마을에 대해 궁금해한다. 금능으로 시집와서 금능 며느리가 된 나의 시선을 따라 금능마을회관만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보자!



5 .indd 12 2023-02-20 6:10:33



01
금능마을회관과 마을 풍경을 드론으로 찍은 모습
02
마을회관을 대관해서 결혼식을 치르는 날
03
2018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본선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기 전 마을회관 앞에서
04
부녀회원들이 금능마을회관 옆 도로변에서
꽃화단을 예쁘게 꾸미고 있는 모습







금능마을회관은 2008년 6월 21일 준공된 지상 2층 신축 건물로서, 연 면적 144평으로 금능2길 1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회관 옆 도로변에 부녀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예쁜 꽃 화단이 기분 좋게 맞아주는 곳이다. 비양도를 병풍 삼아 모래밭이 펼쳐져 있고, 에메랄드빛은 금능의 자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능리 사무소

금능마을회관 1층에 자리잡은 리사무소는 그야말로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행정 처리에 도움을 주는 민원실이다. 사무실 안에는 차 준비실과 화장실, 마을에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회의 책상이 놓여있다. 이장님과 이사무장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이다. 금능에 이사오면 가장 먼저 들려서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놓으라고 권하고 싶다. 금능마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을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방송들은 이사무장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금능마을에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로 전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리민들이 많으므로 시기적절하게 서류신청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방송도 하고 문자로 전송해주고 있다. 그래서 깜박하고 못 챙기는 일이 없도록 마을사람들의 경조사 알림도 일괄 안내해주고 있어 너무나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또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마을 식당 대관도 가능하다. 금능마을사람이면 누구나 장소 대여비만 내면 결혼이나 돌잔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을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한 것이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5 .indd 13 2023-02-20 6:10:35


01



02

마을회관 앞마당

금능리는 장수마을로 유명하다. 마을을 산책하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게 된다. 어버이날은 금능리 청·부녀회에서 주관하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효 잔치가 매년 진행되는데, 마을 스피커에서는 흥이 나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어르신들의 춤사위는 마을회관 마당까지 번져 흥겨움의 장으로 변한다. 효심이 넘치는 마을이라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까지는 경로잔치도 한 달에 한 번씩 부녀회에서 준비를 했다.

2019년 5월 8일 어버이 '효' 잔치날은 내게 있어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다. 청년회가 마을회관 마당에 천막을 치고, 부녀회원들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다. 늘 그렇듯 오락 강사가 와서 어르신들의 웃음을 책임졌다. 풍물 옷을 멋지게 입고 나와 악기를 신명 나게 두들기고 난 후 사회자가 어르신들에게 어버의 날 노래를 불러주라는 제안을 해서 악기를 맨 채 어버이 은혜 노래를 다같이 불렀었다.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메어 눈물 훔치는 부녀회 언니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맺혔다. 늘 느꼈지만, 이 날은 더욱 금능 부녀회 언니들의 고운 효심을 느낄 수 있었다. 빨간 카네이션 꽃을 달고 손뼉을 치며 어깨를 들썩이던 어르신들의 웃음꽃이 그립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효 잔치를 할 수 없어 쌀과 밑반찬 나눔 행사로 진행되어서 아쉬울 따름이다.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되어 어버이날 어르신들을 모시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다려본다.

01
어버이 "효"잔치날 민요가락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는 어르신들
02
부녀회 풍물회원들이 어르신들 앞에서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불러주었던 날
03
노래방 기기의 노랫소리에 다함께 덩실덩실


03



01
빙 둘러앉아 어르신 경로잔치 음식으로
빙떡을 만드는 부녀회원들
02
바쁘다 바빠! 잔치준비에 분주한 손길들
03
어르신들을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04
뜨거움을 참아가며 갓 삶은 돼지고기를
먹음직스럽게 썰고 있는 모습







다목적 식당

1층에 있는 리사무소 벽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 공간은 다목적 식당이다.
이곳은 원래 경로당으로 안마의자라든가, 노래방 기기가 있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경로당이 신축되어 옮겨가면서 다목적 식당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어르신을 섬기는 효심 넘치는 최강 금능 부녀회원들이 있기에, 경로잔치나, 마을잔치날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낸다. 빙떡도 지지고, 푹 고와진 돼지뼈 국물에 몸이 듬뿍 들어간 몸국, 갓 삶아낸 돼지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내고, 갈치도 튀기고, 맛깔스러운 밑반찬과 더불어 정성 가득 효심이 담긴 금능 밥상이 차려지느라 언제나 분주한 공간이다. 음식을 드시는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항상 따뜻한 밥정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공간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금능 원담축제 음식 준비는 이곳에서 재료준비로 시작된다. 적극적인 부녀회원들의 봉사 정신으로 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오고 있다.

그리고 다목적 식당은 다양한 신메뉴들이 개발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김장김치를 담그는 양념부터, 톳 장아찌, 마늘 고추장, 마늘종, 전복장, 새우장, 미숫가루 등이 탄생한다. 100인분의 큰 솥에 몸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면 마치 설문대 할망이 오백 장군을 위해 죽을 쑨 것처럼, 금능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 생명의 솥단지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올해는 어촌테마마을역량강화사업으로 특화메뉴컨설팅 과정이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금능리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메밀, 톳, 고구마, 돼지고기, 뿔소라)를 이용하여 금능만의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는 목적의 요리수업이었다. 다목적 식당에서 개발되고 만들어진 음식이 더 업그레이드되어 마을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5 .indd 15 2023-02-20 6:10:37

2층
회의실

2층 회의실에 들어서면 정면 벽면에 '리민의 和合으로 飛躍하는 금능리' 현수막이 붙어 있다. 금능마을에 살면서 화합이라는 한자는 금능의 매력을 잘 나타내는 글자라고 생각한다.

금능마을에 무슨 일이든지 똘똘 잘 뭉치고, 단합이 잘 되어서 다른 마을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이 공간의 주 기능은 마을 총회, 부녀회 총회가 열리는 장소이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면 하루 일과를 마친 부녀회원들이 풍물패 연습하러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금능리 부녀회원으로 구성된 풍물패의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마을 행사 길 트기는 물론 한림 한수위 축제에도 초빙받아 공연을 나가는 등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요가 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고,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강의, 'SNS 전문가 라이브커머스' 교실, 어촌테마마을 '마을디자인학교' 운영도 하고 있다. 하나의 건물이면서 그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능을 담고 있다. 마을사람이 성장함으로써 마을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공간이다.

2층 회의실 옆에는 부녀회 사무실이 있다. '금능리 부녀회'는 최강의 협동력과 단합심, 강력한 체력으로 마을의 모든 행사에 앞장서고 있는 자치 조직이다. 부녀회 사무실은 역대 부녀회장들의 얼굴이 벽면에 붙어 있고, 부녀회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부녀회장(문미열)은 부지런히 다리품을 팔아 클린하우스에 버려진 병이나 캔을 모아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부녀회원들에게 예쁜 앞치마를 한 개씩 선물해주기도 했다. 감사하고 감동 받았고, 금능 부녀회원들이 끈끈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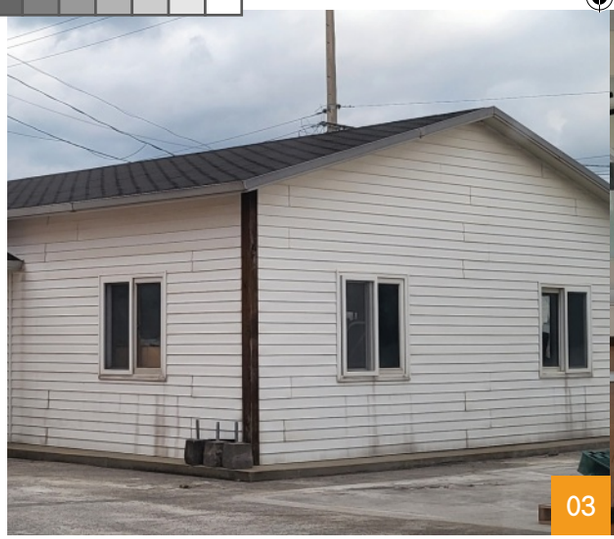
01
금능리부녀회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02
풍물가락을 배우며 흥을 채우는 시간
03
체력단련실 외관 조립식 건물
04
체력단련실 안 운동기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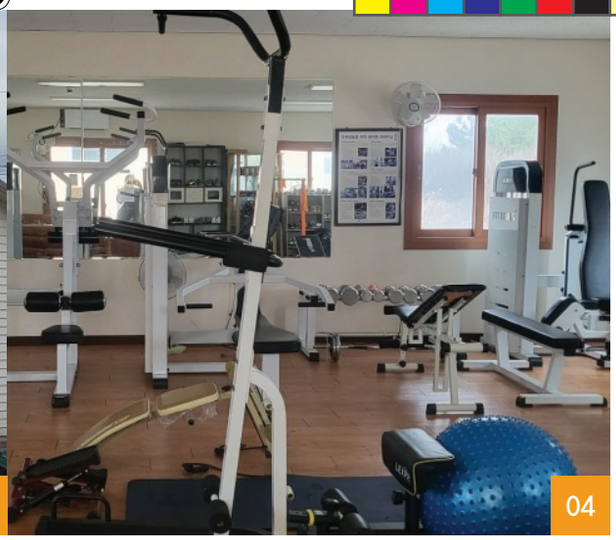


01


02

5 .indd 16 2023-02-20 6:10:38


03


04

부속건물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2009년에 조성되었다.

화창한 봄날, 종종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건강미 넘치는 남자를 본 적이 있다. 이제야 그분이 누구인지 베일이 벗겨졌다. 그분은 금능마을회관 옆에 조립식으로 지어진 체력단련실에서 10년째 무보수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신성희리민이었다. 전자 일을 하는 신성희 리민은 도에서 지원해준 운동기구와 전기로 작동하는 운동기구들을 본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 점검하며 잘 유지하고 있다. 운동하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운동 기본자세 등 운동기구 사용법도 알려주고 있다.

체력단련실 운영시간은 여름에는 5시부터 10시까지, 겨울에는 5시부터 9시까지다.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화 한 켤레 챙겨서 체력 단련실을 잘 활용하고, 많은 금능리민이 다 함께 건강하고 장수하는 마을로 유지되기를 바래본다. 人·IN



오늘도 금능바다에 들엄수다

특집대담 세대를 이어가는 금능해녀를 만나다

진행 및 글 | **양민숙** · 사진 | **한명희**

바다마을에서 해녀가 된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해녀가 되어 한 평생 바다와 함께 하셨다. 이번 <금능대담>에서는 금능해녀들을 모시고 금능바다와 함께 했던 시간을 들어보았다. 대담 시작부터 울음이 함께 했다. 삼촌도, 언니도, 동생도 그리고 나도 함께 울었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본다.



대담일시 | 2022년 12월 14일 대담장소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금능해녀들

홍준자(79) 13세부터 물질을 시작했고, 17세에 출향물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해녀의 길로 들어섬
양옥열(72) 13세부터 물질을 시작했고, 19세에 출향물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해녀의 길로 들어섬
윤정자(67) 결혼 이후 27세부터 물질을 시작했고, 출향물질 경험 없음
양영자(68) 18세부터 출향물질 하면서 해녀의 길로 들어섬
김은선(60) 19세부터 출향물질 하면서 해녀의 길로 들어섬
홍준희(63) 금능어촌계장, 결혼 이후 37세부터 물질을 시작했고, 출향물질 경험 없음
양영아(55) 2015년도부터 시작, 출향물질 경험 없음
이은옥(43) 2015년도부터 시작, 출향물질 경험 없음
손화진(38) 2015년도부터 시작, 출향물질 경험 없음

5 .indd 18 2023-02-20 6:10:39

양민숙 늦은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능바다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선.후배 금능해녀들을 '금능대담'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해녀문화, 해녀공동체 등 과거의 모습을 통해 현재, 나아가 미래의 금능 바다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지난했던 해녀의 삶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삶에 바다는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홍준자 많은 도움이 되었죠. 밭에서는 보리나 조 등 집에서 먹을 농작물 정도만 수확했고,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돈이 나는 것은 전부 바다 수확물 뿐 이었습니다. 소라, 미역 등을 잡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양민숙 미역해경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준자 미역해경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또 옹포리에 소라 통조림 공장이 있어서, 소라를 팔면 그곳에 납품했습니다. 그 공장은 아마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수협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마다 중간 상인이 있었고, 그 중간상인에게 소라를 팔았었죠. 공장에서는 통조림을 만들어 일본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 그 당시는 해산물이 많았을 텐데 그 많은 물량을 전부 판매할 수가 있었나요?

홍준자 물건은 많았지만 그때는 고무옷이 없었기 때문에 속곳만 입고 잠수를 하면 여름에는 3~4시간, 겨울에는 길어야 2시간밖에 물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서요.

양옥열 우리가 물질을 하던, 1970년대 초에는 비양도 갈 때 추우니 배 안에 화덕을 만들어서 물을 들다가 추우면 화덕에 몸을 쬐고는 했어요.

홍준자 맞아요. 추우면 돌에서 몸을 말리거나, 배에 화덕에서 몸을 녹이고는 다시 입어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물건을 많이 잡을 수는 없었죠. 비양도까지 배를 타고 가서 비양도를 중심으로 물질을 했어요. 선장이 방향을 잡아주면 노는 해녀들이 직접 저어서 다녔죠. 배 삯은 소라로 지불했어요.

양민숙 그럼 그때 수입이 살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겠네요?

홍준자 엄마들은 살림의 중요한 밑천이고, 그 당시 아이들도 보통 12세~13세 되면 다 물에 들기 시작했으니, 부모님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죠. 동생들 자라는데 보태기도 하고, 결혼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양민숙 언니의 수입이 동생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그 당시는 그것이 당연시 되었었나요?

홍준자 당연시 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집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누구의 수입이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윤정자 우리 언니도 일찍부터 출향물질을 나갔는데, 언니가 물질을 마치고 추석에 집에 올 때면 내 옷을 사왔어요. 그 당시 어렸던 나는 언니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지금 생각해보니 언니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언니가 사고 올 선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양민숙 이 정도 이야기만 들어도 그 당시 삶이 얼마나 핍박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말이 출향물질이지, 집을 떠나 타향에서 물질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홍준자 육지 가려면 쌀을 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직접 지은 보리쌀을 자루에 담아 조그만 배를 타고 포항 구룡포까지 갔어요. 그 곳에서 각자 물질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생활을 했죠.





해녀 홍준자(79)



해녀 양옥열(72)



해녀 윤정자(67)

김은선 출향물질을 가면, 얼마나 못 살면 이 곳까지 물질을 왔냐며, 그 곳 현지인들한테 참 많은 천대를 받기도 했어요.

양민숙 그런 생활을 했기에, 대를 이어 딸들이 다시 해녀를 하는 부분에 대해 엄마들의 마음은 너무도 무거웠겠어요?

양옥열 그때는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누가 해녀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해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해안가 마을의 딸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었죠. 19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5년 정도 출향물질 하다가 결혼하면서 육지 물질은 그만두었습니다. 육지 물질 다닐때는 그 곳 현지인들한테 참 무시를 많이 당했죠. 제주는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물질을 한다. 고 생각했으니까요.

양민숙 그 지방 사람들 중에 해녀는 없었나요?

홍준자 원래 없었죠. 제주사람들이 물질 갔다가 그 곳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그 곳에 정착하게 된 경우는 그 곳에서 해녀 일을 했지, 원래 그 지역 사람들은 해녀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양민숙 그동안 물질하기 위해 다녀왔던 곳들을 말씀 좀 해주세요.

홍준자 나는 구룡포 장길리를 포함하여 여수, 보성 피조개잡이 등 안 가본 것이 없었어요. 17세부터 다니기 시작하였고, 중간에 한 두 번 쉬었고, 40세까지 계속 다녔어요.

양옥열 완도 보길도도 갔었죠.

윤정자 나는 금능 바다에서만 물질을 했고, 출향물질은 안 다녀왔어요.

양영자 나는 충청도에 있는 섬으로 많이 다녔죠.

김은선 나는 여수, 완도 쪽으로 다녔어요.

양민숙 바다도 모든 삶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적응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요. 편하게 물질하던 금능 바다를 떠나 모르는 지역에서 물질을 하는 과정이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참 많은 고난이 따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녀의 길로 접어든지 몇 년 되지 않은 말 그대로 애기해녀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힘든 과정을 왜 선택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손화진 태어나보니 엄마가 물질하고 계셨어요. 바닷가 마을에 살다 보니, 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였고요. 자연스럽게 물질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누구의 개입이 있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혹은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사실은 제가 원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마을어촌계에서 수습기간을 주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면 어촌계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얼른 하게 되었어요. 마침 운이 좋았던 게 그 당시 해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후배 양성을 위해 금능어촌계에서 잠시 그 방식을 도입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때 3~4명이 같이 시작했어요.

양민숙 사실 해녀의 가치가 중요시되던 어느 시점부터 해녀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녀학교도 생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마을어촌계와의 입장차이로 바로 해녀가 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금능어촌계의 방향이 참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녀들은 대부분 금능 마을어장 양식장 해경 때만 입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양도까지 가서 작업하는 해녀는 몇 분 정도 계세요?

홍준희 7명 정도, 이 분들은 해녀일이 본업이고 양식장만 하는 사람들은 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녀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 년에 입어 일수를 60일 이상 채워야 현직 해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녀들에게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정말 해녀를 하는 사람인지, 등록만 한 사람인지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손화진 사실 마을양식장만 작업해서는 그 60일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60일 이상 마을양식장 해경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톳작업, 마을어장 주변 해안가 청소 등 금능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여러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준희 예전에 비해 해산물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 실제로 작업하는 해녀 수는 더 많이 늘었고요. 물건은 없고 해녀 수는 늘었고, 해녀만 해서는 예전처럼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5 .indd 20 2023-02-20 6:10:44



진행 양민숙



해녀 양영자(68)



해녀 김은선(60)



해녀 홍준희(63)

양민숙 지금에야 해녀로 접어든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앞으로 해녀를 지속해야 하는가, 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영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작업량에 비해서는 고소득이라 할 수 있죠. 하루 3~4시간 작업해서 많을 때는 20만원, 25만원 될 때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날씨, 작업량 등 많은 변수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요.

홍준희 마을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배가 있다면 비양도까지 매일이라도 원하는 해녀들을 태우고 갈수 있는데, 마을 배가 없다보니 마을어장 양식장만 하고 있죠. 어촌계장으로서 해녀들한테 좀 더 많은 부분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합니다.

양민숙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선배 해녀들이 후배 해녀들한테 물건이 많은 곳이나,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시나요?

김은선 마을 어장에서는 하고 있죠. 저도 선배 해녀들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비양도를 가지는 않으니 그곳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양민숙 제주해녀들의 삶을 보면, 바다가 어떤 숙명 같은 존재로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시더라고요. 하지만 바다가 마냥 자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공포감을 가졌던 적은 없었나요?

홍준자 그런 공포감이 있다면 물질하기가 힘들죠.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살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서 바다와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김은선 저 역시 바다에 대한 공포감을 가져본 경험은 없어요.

양옥열 파도가 셀 때는 그만큼 파도의 저항을 받아서 몸이 많이 힘들긴 하죠.

양민숙 얼마 전 금능바다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있었는데, 직접 목격하지 않다 하더라도, 같이 물질하던 동료가 사고를 당하면 힘드시겠어요?

홍준자 당연하죠. 사고가 났던 지점에 가면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밖으로 내색하지는 않아요. 속으로 삼키고 삼키면서 해녀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죠. 해녀들은 모두가 그렇게 물질을 합니다.

양민숙 참, 말씀을 들으면서 뭉클거림이 계속 가슴 언저리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녀하기를 잘했다, 생각하시는지요?

홍준자 결혼하기 전에는 동생들 뒷바라지 할 수 있었고, 결혼해서는 물질을 해서 모아두었던 비상금으로 과수원을 사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그 돈이 없었다면 아마 어떤 시도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양영아 해녀문화가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내가 그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또 얼마전에는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CT촬영을 받아야만 했어요. 해녀는 도에서 병원 검사비.진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검사비 지원을 그때 받게 되었죠.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은선 출향물질 한 해 가서 그 돈으로 과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과수원의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죠.

양옥열 물질해서 번 돈으로 결혼도 했고, 결혼식 자금으로 쓰다 남은 돈으로 1,650평짜리 밭을 샀어요. 그 후로도 해녀수입이 꽤 되어서 사실 아이들 키우며 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홍준희 해녀를 하다 보니 어촌계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웃음) 저

5 .indd 21 2023-02-20 6:10:47

는 그렇게 잘하는 해녀가 아니라서, 꼭 돈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운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는 공동체라는 '해녀문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민숙 지금까지 해녀를 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도 함께 이야기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선 저는 출향 물질을 가면서 해녀를 시작했는데요. 고무옷도 처음 입어 보았고, 물안경도 처음 써 보았기 때문에 물질 도구를 다루는 법이 너무도 서툴렀죠. 배에서 바다로 뛰어 내릴 때는 항상 물안경을 손으로 잡고 뛰어 내려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냥 뛰어내리면 물안경이 압력에 의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요. 바다 속에서 물안경 찾으러 참 많이도 다녔죠. 사실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홍준희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 입었던 물옷이 있어요. 고무옷을 입을 줄 몰랐는데, 정자 언니가 입혀 주었죠. 그때 고무옷을 입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고무옷 안에 입는 물옷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낡아 입을 수 없는데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간직하고 있어요.

윤정자 그때 홍계장님이 우뭇가사리 채취를 하는데, 한 손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두 손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말리는 것도 제가 다 해주면서 해녀 일에 재미를 붙이게 해 주었죠.

홍준희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해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시작했어요.

윤정자 저는 물질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반대하셨어요. 해녀의 삶이 너무 힘드니, 딸은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결혼하고 나서야 해녀를 시작했는데, 살림에 정말 많은 보탬이 되었죠.

양영자 예전에는 농사 짓는 작물이 한정적이었어요. 겨울엔 거의 농사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 물질하고 남는 시간에 밭일 해도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한기가 따로 없어요. 사계절 밭일이 너무 많아요. 하우스가 생기면서 계절을 타지도 않고요. 그러니 물질하고 밭일 하다보면 몸은 예전보다 더 힘들어진 거죠. 예전에는 시간이 남아서 바람 불면 솔잎 긁으러 다니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홍준희 교통편이 편리해진 이유도 있어요. 집집마다 자동차, 오토바이가 있어서 물질 다녀와서도 쉽게 밭에 갈 수가 있으니, 바닷일. 밭일 이레저레 바빠졌죠.

이은옥 저는 해녀를 하면서 '인간극장'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전체 웃음) '해녀밥상'에도 출연하였고요. 처음에는 멋 모르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해녀로서의 길을 더 충실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의무감 같은 것도 느끼고요.

손화진 저도 그래요. 재미로 좋아서 시작했지만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최선을 다해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양민숙 후배 해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세요? 선배로서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홍준자 젊은 해녀들이 속도가 워낙 빨라요. 빠른 것도 좋지만 천천히 주변에 사람은 없는지 주위를 살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녀의 공동체 정신도 잘 이어가 주었으면 바랄 게 없죠.

김은선 제가 막내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후배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너무 좋아요.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겠습니다.

양영자 조금만 더 밖으로 나가면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물 속에서의 잠수는 사실 경험의 힘이죠. 그리고 노력의 힘이기도 하고요. 저

해녀 양영아(55)



해녀 이은옥(43)



해녀 손화진(38)





도 그렇게 배웠어요. 나중에는 금능을 이끌 상군해녀가 될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홍준희 너무 예뻐요. 선배해녀들이 무거운 망사리를 못 들면 얼른 와서 들어주고 있어요. 선배들을 위한 후배들의 행동이 너무 고맙죠. 저는 거꾸로 후배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윤정자 사실 시킬 나위가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양민숙 더 잘하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현재 해녀는 몇 명이나 되죠?

홍준희 현재 69명이고요. 이제 세 명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최고령 해녀는 84세로 양선자 삼촌이고 가장 어린 해녀는 38세 손화진이예요. 30대부터 80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민숙 해녀들이 늘어가고 있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렇게 계속 해녀들의 맥이 끊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준희 바다 환경이 좋아져야 하고, 해녀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 있어야 하겠죠. 지금은 고무옷 지원과 병원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해녀들의 안전을 위해 75세 이상 해녀들이 은퇴하게 되면 연금 50만원씩 3년 동안 지급되기도 합니다. 해녀 연금도 있어요. 70대 월10만원 80대 월20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민숙 사실 이런 연금도 중요하지만, 해녀들에게 있어 바다는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은퇴가 아닌 죽을 때까지 바다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홍준희 현재 편찮으셔서 못하는 해녀들은 다 그렇게 말씀 하시죠. 바다에 가고 싶다, 라고...또 지금쯤 어느 바다에 가면 뭐가 있는데, 라고 읊조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양민숙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보았는데요. 은퇴하신 선배해녀들이 후배해녀들을 위해 본인만이 알고 있는 바다 속 장소나 물질 잘하는 비법 같은 것들을 전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홍준희 너무 좋죠. 바다에는 여(바다 속 동산)가 많아요. 그런 곳에 해산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를 아는 선배해녀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 여들이 비밀 속으로 사라지고 있죠.

양민숙 '여'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죠?

양영자 예전에 자리 잡으러 다니던 할아버지들이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리가 나는 위치를 알기 위해 찾기 쉬운 이름을 정해 놓은 거죠. 이를 테면 산방산이 보이는 곳이라서 '산방난 여', 나무 깨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낭깨는 여', 문이 달린 모습이어서 '문돈 여' 같은 이름을 지었죠. 참, 박정화 삼촌이 잘 드는 곳이라고 해서 '박정화 여'도 있어요. 이름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모양, 특징, 위치 같은 것으로 대부분 지어지는 것 같아요.

양민숙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현재 비양도를 다니고 있는 해녀 7명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면, 그 '여'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바다 속 지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판로는 어떤가요?

양영자 코로나로 판로가 굉장히 많이 막힌 편이죠. 수협에서 수확량 전체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어요. 다행히 금능은 '맛차롱협동조합'을 통해 소라를 전량 판매하고 있지만, 다른 마을은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양민숙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유네스코문화유산인 해녀문화가 지속되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판로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할텐데요. 해녀들이 이 문제까지 걱정을 할 정도면 걱정입니다. 앞으로 수협과 행정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녀문화, 해녀의 삶, 공동체 정신 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금능바다에서 해녀로서의 가치를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되지 않았다. 해녀의 목욕장면, 바다에서 발견되었던 탄피 이야기, 한때 많이 수확했던 맛조개 이야기 등 이야기는 한참 더 남아 있다. 지면 문제로 전부 싣지 못했지만, 위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내 가슴 속 뭉클함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많이 늦지 않은 시기에 금능 바다 속 지도를 꼭 제작하겠노라는 다짐도 해 보았다. 이렇게라도 그들을, 금능바다를 지켜 가는 그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 人·IN

5 .indd 23 2023-02-20 6:10:51

금능어촌마을 김장하는 날

10년째 이어진 사랑의 김장담그기 따뜻하고 행복한 풍경

글·사진 | **한명희**











금능리에서 해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대규모 사랑의 김장김치 담아 전달하는 행사가 펼쳐져 추운겨울 따뜻하고 훈훈만 미담이 되고 있다. 금능리 부녀회를 주축으로 청년회와 마을주민들이 모여 추운 겨울철을 앞두고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아 금능리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이날은 부녀회원들, 청년회원들과 마을주민들이 바쁜 농사일과 가사일을 잠시 미루고 마을회관에 모여 배추를 절이고 맛있고 정성이 듬뿍 담긴 양념을 만들어 김장김치를 만든다. 한번도 김치를 담궈보지 못한 주민도 있고 매해 빠짐없이 참여하는 베테랑 주민도 있으며 금능리에 새로 터를 잡아 원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이주민들도 있다. 아낙네만 앞치마를 두루는게 아니라 세월의 변화에 발 맞추는 것인지 남자분들도 앞치마를 두르며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에 취해 웃음꽃이 피우는 김장담그기 행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부녀회원들은 절인 배추에 맛깔나는 멜젓갈, 새우젓갈, 까나리액젓, 무, 대파, 양파, 된장 등 맛있는 양념과 정성으로 김장을 한다.
문미열 부녀회장은 자식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담근 김치로 이웃 어르신과 이웃에게 마음을 나눌수 있어 뿌듯하다며 김치를 받는 모든 분들이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문철 이장님은 매년 마을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봉사를 하는 부녀회원분들과 청년회원과 마을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뜻깊

5 .indd 25 2023-02-20 6:10:54







은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능으로 시집 온 김숙량 주민은 김장담그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마을 분들을 한분한분씩 더 알게 되어 내가 살고있는 마을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 들고 마을길을 걸을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게 되니 바쁜 일이 있어도 김장담그는 행사나 마을행사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고 했다. 한번도 안해 본 일이라 힘은 들었지만 너무 재미있고 뭔지 모르는 뿌듯함이 있어 금능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싶어진다고 했다.

김장의 형태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어렸을 때에는 지금보다 겨울은 더 추웠고 월동준비로 장작을 지게로 지어 나르며 미리 장만해 놓거나 연탄을 집 한켠에 높이 쌓아놓고, 마루에 있는 뒤주에 쌀을 한가득 저장하면서 새로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봄이 될 때까지 겨울나기를 준비하였다. 70년대 80년때만 해도 겨울나기 동네행사로 김장을 했으며 김장하는 날에는 동네 아낙네와 아저씨들이 김장하는 집에 가서 품앗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대부분 핵가족 중심과 함께 김치냉장고의 보급화에 따라 겨울나기 보다는 김치를 조금씩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김치를 담그는 방법과 김장의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하고 심지어 중국에서 우리의 김치를 자기네 것으로 우기는 시대까지 왔다. 문헌에 따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김치를 담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김장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한다. 겨울이 1-2개월로 짧고 3월이면 야채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장을 해도 조금씩만 했다고 한다. 금능리의 김장은 배추가 귀해서 봄동같은



5 .indd 26 2023-02-20 6:10:55

퍼대기 김치기에 속은 멜젓과 자리젓만 넣고 여러 가지 속재료들이 안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소금이 귀해 원담 안 바닷물에 김치를 담갔다가 빼내는 것으로 배추절임을 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음력 정월을 전후해서 김장을 시작하여 겨울이 따뜻하여 김장독을 묻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옛 금능주민들은 김장독을 땅에 파묻기도 하였지만 모살밭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모래밭에 묻기도 하였다고 한다.

김장담그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로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아 2013년 12월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우리 집안의 음식문화를 대표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품앗이 풍습이 담겨 있기에 점차 사라지는 김장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의미와 마을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능리에서는 매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김장담기기 행사를 하고 있다. 한해 걸러 또는 두해 걸러 해 오던 행사를 2015년 조미혜 전 부녀회장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조미혜 리민은 단순히 김치를 나르는일이 아니라 봉사와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모이게 되니 동네주민들의 문턱이 낮아지고 관심을 갖게 되니 자연스럽게 어르신들도 시야가 달라졌고, 소통도 잘 되고 마을행사 또한 더 잘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장담그기 행사를 보면 금능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잘 할수 있다는 단합력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을 볼 수 있으며 장수마을답게 효를 실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타 마을의 귀감이 되기도 한다. 일년의 행사 중 하나일 수도 있으나 금능리에서의 김장담그기 행사란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두루 살피는 효를 실천한다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人·IN









5 .indd 27 2023-02-20 6:10:56

금능리 축구팀이 제34회 한림읍민 종합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다. 참가한 지 68년 만의 첫 우승이었다.
타 마을처럼 선수 영입 및 엘리트 체육 출신 선수, 이주민 등을 추축으로 한 팀이 아닌
순수 금능에서 나고 자란 금능리민으로 이루어져 더욱 뜻깊은 우승이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금능리 축구팀 제34회 한림읍민 종합체육대회 우승

글 | **한명희** · 사진 | **금능리청년회**

5 .indd 28 2023-02-20 6:10:57

2022년 9월25일 한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경기 결승에서 금능리 축구팀은 명월리팀을 맞이하여 시종일관 밀리고 밀리는 치열한 경기 끝에 전후반 0대0 동점으로 승부차기에 돌입, 4대2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금능리 축구팀의 한림읍체육대회에서의 우승은 쉽지 않았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으며 당초 대진표에서 금능리의 분위기는 1승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20년 전부터 정식으로 결성된 축구부는 아니지만 금능리 축구부는 명맥만 유지했으며 선배들은 항상 예선탈락의 눈물을 보였다. 그때부터 후배들은 언젠가는 우승컵을 들겠노라고 스스로 약속했다고 한다.

양태혁리민의 자문과 고영민감독 김정협주장을 필두로 이번만은 약속을 지켜보자고 다짐의 다짐을 다하여 한 달 전부터 맹연습에 돌입하였다. 늘 그래왔듯 첫 연습부터 헛발에 넘어지기도 하고 오합지졸이었다. 주1회 훈련을 하기로 하였지만 첫연습을 하였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주3회는 훈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고 고산운동장에서 야간훈련을 했다. 1회 2회 3회 훈련이 거듭될수록 조직력이 살아나고 희망을 보게 되니 축구팀원들은 조금씩 무리를 하게 되었다. 점점 한두 명씩 근육통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예선전까지 총 7명의 부상자가 되었다. 11명중에 7명의 부상선수들이 예선전을 치르게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금능리가 받아든 첫 상대는 동명리로 힘겹게 4대3으로 승리를 했다. 읍체에서 한번도 이긴 적이 없던 한림리를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났다. 이때는 고남호 골키퍼는 근육파열로 움직이지도 못했기에 너무나 힘겨운 경기였다. 2대0으로 힘겹게 이기기는 했지만 골키퍼는 더 이상 다음 경기에 출전할수 없는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준결승전은 옹포리를 상대해야 했다. 하지만 골기퍼가 없는 상황에서 금능리 축구팀은 좌절하지 않고 긴급회의를 한 결과 운동신경이 좋고 예전에 골키퍼 경험이 있던 장규성리민을 급하게 섭외하기로 했고 흔쾌히 받아주었다. 이때부터 점차 자신감을 찾게 되었고 할수 있다는 희망의 불빛이 점점 환해졌다고 한다. 강팀을 만나면 위축되던 모습은 사라지고 선 수비 후 역습 전략으로 후반 종





료직전 김성화리민의 중거리슛으로 기적같은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할수 있었다. 읍체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간 순간이었다.

이 기세를 탄 금능리 축구팀은 결승전에서 명월리 선수들을 맞아 경기 시간 대부분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아쉬운 골 결정력으로 몇 번의 찬스를 놓치면서 어렵게 경기를 끌어가며 명월리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다시 흐름을 바꾸는 등 결승전은 마치 한국 국가대표 한일전을 연상케 할 만큼 치열했다.

0대0으로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한림읍에서도 알아주는 선수급 명월리 골키퍼 vs 훈련도 안한 급 섭외한 금능리 골키퍼. 누가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때 늘 예선전에서 탈락했던 때를 생각하며 우승 한 번 해보겠다는 약속이 생각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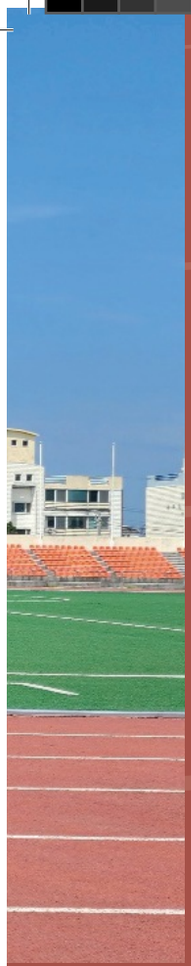
선축 금능리 첫 키커 대표 너무 긴장한 탓에 실축. 명월리 첫 키커도 실축. 금능리 두 번째 키커 조재흥 성공으로 1:0. 명월리 두 번째 키커 성공으로 1:1. 금능리 세 번째 키커 고석준 성공으로 2:1. 명월리 두 번재 키커 급 섭외한 금능리 골키퍼의 선방으로 2:1. 금능리 세 번째 키커 김성화 성공 3:1. 명월리 세 번째 키커 성공 3:2. 이제 마지막 금능리 네 번째 키커만 성공하면 우승을 차지할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 금능리 마지막 키커 김정협이 찬 공이 골망을 흔들면서 모든 선수들이 뛰어들어 환호성을 질렀으며 이를 응원한 금능리민들이 모두 환호성과 함께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다.

이렇게 결승전까지 금능리 축구팀이 올라간 것도 사상 처음이지만 우승컵까지 높이 올릴 수 있는 일이 처음이었다.

에피소드.

김성화선수는 썬크림을 마치 강시처럼 잔뜩 바르고 경기장에 와 놀림과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원래 수비수여서 골을 못넣는데 예

5 .indd 30 2023-02-20 6:10:59











선전에 1골을 넣고 다음 경기에도 똑같이 썬크림을 잔뜩 바르고 경기하고 또 골을 넣으니 이제는 선수들이 더 더 하얗게~~ 썬크림 잔뜩 발라주니 결승전까지 계속 골이 나왔다고 한다.

체육대회 뒷풀이때 우승컵에 소주를 잔뜩 따라 마시며 자축까지 했다. 김정협 주장은 일상으로 복구하였으나 그날의 감동은 아직 가슴속에 남아있다고 했다. 축구로 인해 청년회원들의 단합이 더 끈끈해졌고 마을분들도 만날 때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하고 40대 선수 한 명 없는데 흔쾌히 받아주고 지도해주며 같이 뛰어주신 50대인 양태혁 선수와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했던 선수, 결승전에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예선전까지 온힘을 다해 막아준 금능리키퍼 고남호리민에게 감사함을 전달한다고 했다.

다음해 목표를 물어보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승이죠~~ 라고 대답한다. 2회 연속 우승을 목표로 그날을 위한 열정과 그날의 희열을 잊지 않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人·IN

5 .indd 31 2023-02-20 6:11:00

금능 밥상

브로콜리가 특별해지는 순간

글·사진 | **양민숙**

브로콜리는 영양면에서 매우 뛰어나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줄기부터 잎, 봉오리까지 전부 먹을 수 있다.

또한 샐러드부터 볶음, 튀김, 스프 등 다양한 음식을 통해 겨울철 밥상을 풍성하게 해 준다.

〈금능밥상〉 이번 호에서는 브로콜리의 다양한 변신을 통한 건강한 음식을 소개해 본다.



5 .indd 32 2023-02-20 6:11:02



브로콜리는 겨울철 건강을 책임지는 주요 식재료다. 금능리에서 브로콜리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다. 감귤농사를 제외하고는 농한기였던 농촌의 겨울풍경은 양채류 도입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금능리 역시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등 겨울채소들이 농가소득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금능리 브로콜리 농가는 약 50가구 정도로 재배율이 높다.

브로콜리는 세계10대 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건강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만큼 다양한 음식을 통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브로콜리는 품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단단하고 봉오리가 꽉 다물어져 있으며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의 것을 최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브로콜리를 생산하기에는 많은 조건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종자, 토질, 날씨, 영양, 정성의 5박자는 모든 농산물에도 그렇듯이 브로콜리농사에도 필요하다.

브로콜리의 농사는 좋은 종자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시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종자를 선택하여 뜨거운 여름 모판에 파종을 하고는 하루에 몇 차례 물을 대며 좋은 모종을 만든다. 정식은 8월 말에서 11월까지 수확시기를 조절하며 하는데, 보통은 9월 중에 이루어진다. 영양이 골고루 버무려진 밭에 정식을 하고 나서도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까지의 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뜨거운 날씨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수분이기 때문이다. 브로콜리의 어린잎과 뿌리는 벌레들에게 최고의 음식이다. 그러기 때문에 병충해 관리도 잘 해야 브로콜리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남은 것은 날씨다. 날씨는 농부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척 예민하다. 기온이 낮아야 단단하고 좋은 브로콜리를 생산할 수 있지만 눈이 많이 내리거나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자칫하다 브로콜리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이지만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갔을 때는 브로콜리 육질이 단단하지 않고 봉오리도 흩어진 모양으로 제값을 받기가 힘들다. 수확시기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처럼 브로콜리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되는 작물이다. ㅅ·IN

브로콜리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 말로 추정되며, 1980년대 초반부터 일부 농가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함량이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나 많으며, 다른 채소류에 비해 철분, 칼슘 등의 함유량이 높아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식재로 활용되고 있다.국내에서는 제주도와 강원도, 충북 제천에서 주로 생산되며, 수입을 통해서도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식재총람〉

5 .indd 33 2023-02-20 6:11:05

금능 밥상

브로콜리 닭가슴살 샐러드



재료 | **브로콜리 1송이, 닭가슴살, 소금, 후추, 올리브유**

드레싱 재료 | **발사믹식초, 꿀, 다진마늘, 올리브유, 레몬**

❶ 브로콜리를 식초물에 거꾸로 5분간 담가준 후 깨끗하게 씻는다.
❷ 닭가슴살을 소금 후추 올리브유에 약 10분 재워준다.
(시중에 판매하는 닭가슴살 사용해도 됨)
❸ 닭가슴살을 익을 때까지 팬에 굽고, 먹기 좋게 찢어놓는다.
❹ 브로콜리를 알맞게 잘라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친다.
❺ 그릇에 브로콜리와 닭가슴살을 올린다.
❻ 드레싱은 소스재료를 혼합하여 1분간 끓여서 식힌다.
❼ ❺의 재료에 드레싱을 알맞게 뿌린다.



브로콜리 베이컨말이

재료 | **베이컨, 브로콜리 1송이**

❶ 브로콜리를 식초물에 거꾸로 담근 후 깨끗하게 손질하고 줄기까지 길게 편을 썬다.
❷ 브로콜리를 데친 후, 베이컨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준다.
❸ 베이컨에 브로콜리를 만 후 꼬지로 꽂아 팬에서 굽는다.

브로콜리 구이

재료 | **브로콜리 1송이, 올리브유, 빵가루, 소금**

❶ 브로콜리는 식초물에 거꾸로 5분간 담가준 후 깨끗하게 씻어 줄기가지 길게 썬다.
❷ ❶번에 소금과 올리브유를 바르고 빵가루를 입힌다.
❸ 에어프라이어에 약 10분간 구워준다.





브로콜리 팽이버섯 볶음

재료 | **브로콜리 1송이, 팽이버섯, 올리브유**

양념장 재료 | **고춧가루, 마늘, 소금, 후추, 깨소금**

❶ 브로콜리는 식초물에 거꾸로 5분간 담가준 후 깨끗하게 씻어 알맞게 자른다.
❷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브로콜리를 볶는다.
❸ ❷에 팽이버섯을 손질하여 넣고 양념장을 두른 후 볶는다.

5 .indd 34 2023-02-20 6:11:07



금능인게

금능 밥상

브로콜리 스프

재료 | **브로콜리 1송이, 양파 1개, 감자 1개, 우유 1리터, 소금, 버터, 후추, 올리브유**

1. 감자와 양파를 얇게 썰어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준다.
2. 브로콜리는 식초물에 거꾸로 5분간 담가준 후 깨끗하게 씻어 데친다.
3. 냄비에 ❶번과 ❷번을 넣고 우유와 버터를 넣어 끓인다.
4. ❸번이 식으면 믹서기로 갈아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
5. 뭉근하게 끓여준다.

브로콜리 김치만두

재료 | **만두피, 브로콜리 1송이, 김치 반포기, 두부 1모**

1. 브로콜리를 식초물에 거꾸로 담근 후 깨끗하게 손질하고 다진다.
2. 김치는 고춧가루를 털어내고 다진다.
3. 두부를 으깨어 ❶번, ❷번과 섞고는 만두 속을 만든다.
4. 만두피에 만두 속을 넣고, 모양을 잡아 만두를 만든 뒤 김 오른 찜통에서 찐다.





브로콜리 문어죽

재료 | **브로콜리 1송이, 문어 1마리, 쌀, 소금**

1. 브로콜리를 식초물에 거꾸로 5분간 담가준 후 깨끗하게 손질하여 잘게 다진다.
2. 문어를 푹 삶고 다진다.
3. 불린 쌀에 물을 놓고 끓이다가 ❶과 ❷를 넣어 알맞게 끓인다.
4. 소금으로 간을 한다.

브로콜리 두부무침

재료 | **브로콜리 1송이, 두부 1모, 소금, 들기름**

1. 브로콜리를 식초물에 거꾸로 5분간 담가준 후 깨끗하게 손질하여 알맞게 자른다.
2. 브로콜리를 무르지 않게 데치고 물기를 뺀다.
3. 두부를 으깨어 ❷번에 들기름을 넣고 무친다.
4. 소금으로 간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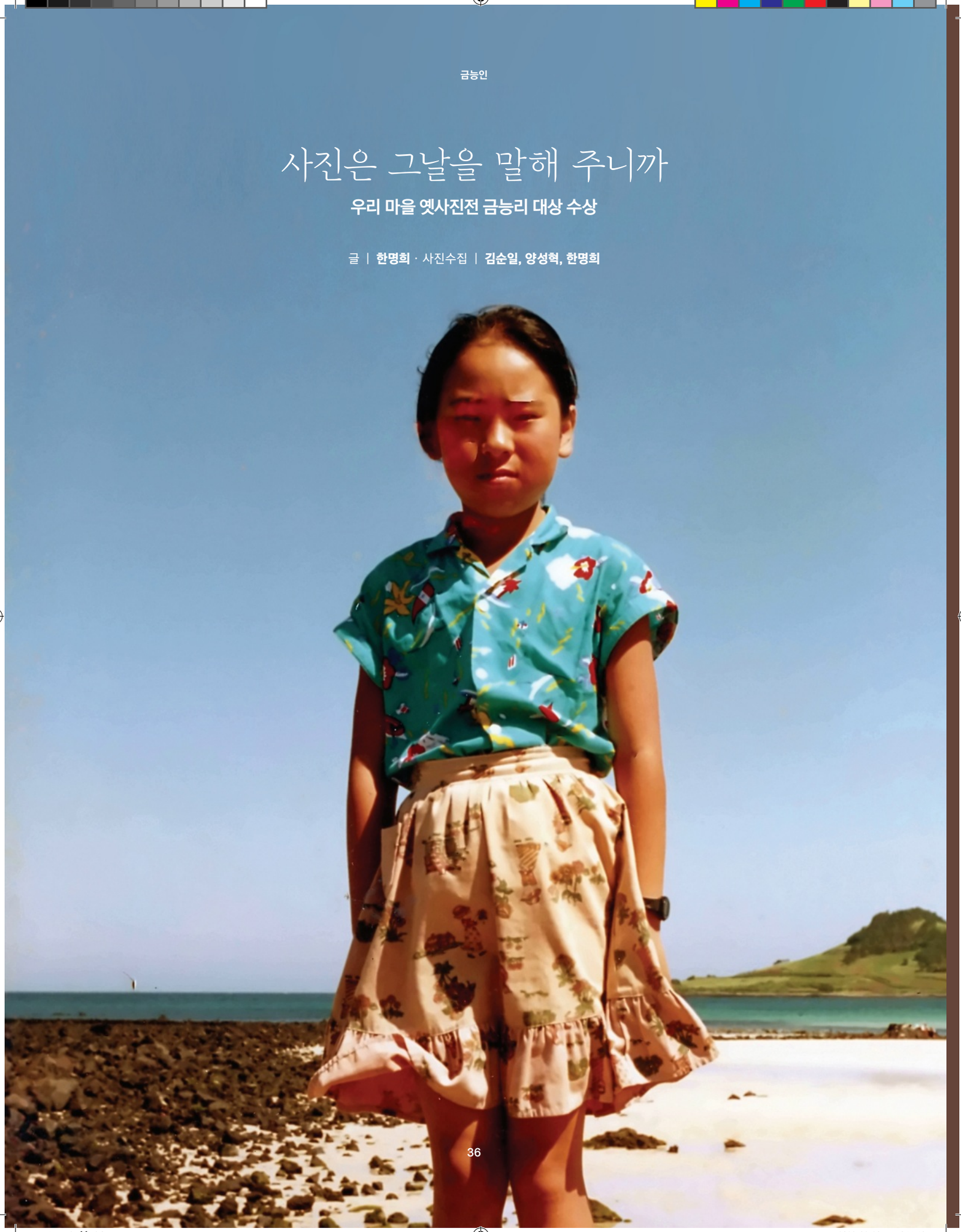


5 .indd 35 2023-02-20 6:11:09

사진은 그날을 말해 주니까

우리 마을 옛사진전 금능리 대상 수상

글 | **한명희** · 사진수집 | **김순일, 양성혁, 한명희**



5 .indd 36 2023-02-20 6:11:10

2022년 12월27일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주체한 '우리 마을 옛사진' 공모전에서 금능리가 마을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점점 변해가는 제주의 모습, 금능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하나하나의 작은추억들을 되집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옛사진을 수집하게 되었다. 금능리 마을하면 빼놓을수 없는 자랑거리 금능원담축제에 마을사진전을 열어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함께 금능리의 옛모습을 보게 된다면 조금 더 금능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금능리 기자단(한명희, 양성혁, 김순일)이 발벗고 나섰다. 리사무소와 마을게시판에 옛사진 모집 공고를 내고 리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다.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떤 사진을 가지고 올지 몰라 하는 리민들이 대부분이었고 호흥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 많은 사진들이 접수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금능리 기자단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진을 받기 시작했다.

장롱서랍에서, 다락방에서 한쪽 깊숙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옛 앨범들을 하나씩 한장씩 보면서 소장 가치가 있는 사진들을 모았다. 모아놓은 사진은 다시 한 번 분류를 했으며 액자에 끼워져 있는 사진은 조심스럽게 해체를 하여 고해상도 스캔을 하여 파일로 만들었다. 파일작업까지 마쳤으니 원본사진들은 모두 돌려드리며 원담축제 때 사용할수 있는 상품권으로 답례를 하였다.

그렇게 100여장의 사진을 모았고 금능리의 '금능아이들', '마을단합체육대회', '재릉초등학교운동회', '초가집', '상량식', '금능장례문화', '금능선진터 도로공사', '금능해수욕장', '졸업식', '동창-갑장회' 등 총 10가지 내용으로 다채롭게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금능해수욕장이 보이는 넓은 잔디밭 야자수 사이로 야외전시를 계획했으나 2022년 금능원담축제 동안 계속되는 비와 강풍에 야외전시를 할수 없었으나 준비한 사진을 부스에서 작게나마 전시를 할수 있게 되었고 다행히 좋은 반응이었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진들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1980년 이전 우리마을 옛사진 공모전에 출품하게 되었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장을 응모를 하게되니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조정현 문학박사가 직접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이 오고 금능리 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 금능리의 옛모습들과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장소까지 조사해 가기도 했다.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 누군가의 추억을,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끌어내고 뜻하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내니 옛모습을 기억하고 알리는 조금 더 많은 사진들을 수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 원담축제 때 금능리마을 옛사진전은 조금더 풍성한 사진들로 전시될 예정이며 금능리 옛사진은 수집하고 현재의 금능리 모습은 생생하게 기록하는 사진을 남겨야겠다. 사진은 그날을 말해 주니까. ㅅ·IN













5 .indd 37 2023-02-20 6:11:11

금능아이들





마을단합 체육대회





재릉초등학교 운동회





초가집 / 상량식





5 .indd 38 2023-02-20 6:11:13

금능 장례문화





금능선진터 도로공사





금능해수욕장





졸업식 / 동창·갑장회






5 .indd 39 2023-02-20 6:11:14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이야기

글·사진 | **최지은 권역사무장**



2020년 우리 마을이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98억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현수막을 통해 보았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금액인 98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니 우리 마을 부자 되었구나 막연히 생각했다. 마을에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결혼해 아이를 낳고 평범한 주부로 지내던 나에게 뭐 그리 큰 영향이 있겠는가? 가까이 있지만 나와는 먼 이야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어항공단에서 올린 공고를 보고 권역사무장직에 지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을에 관심을 갖고 어촌테마마을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마을의 인적, 물적, 문화 자원이 참 풍부하고 가치가 있는 마을이라는 것과 왜 공단에서 우리 마을을 선정하였는지 알게 되었다.

1년여 간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직접 운영해보고 경험하고 느껴본 바를 통해 가깝고도 멀게 느껴졌던 어촌테마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가고자 한다.

5 .indd 40 2023-02-20 6:11:15

어촌테마마을이 되기 위한 준비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주관하는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통합재생과 균형발전에 맞게 함께 고르게 잘사는 어촌어항 조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이창훈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선정 당시 마을운영위원회 및 청·부녀회장이었던 11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마을 운영위원회의 경우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면 구성원이 바뀌고 청·부녀회의 경우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만 추진위원회의 경우 선정 당시 운영위원과 청·부녀회장을 추진위원으로 유지해 어촌테마마을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감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금액이 조정되어 최종 국비 67억, 도비 29억, 총 96억을 확보해 어촌관광 수요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의 노후된 시설들을 정비, 리민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크게 경관 및 편의시설 개선과 리민 역량강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항·포구 환경 개선을 통해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금능포구, 어민에게는 편리한 포구로 재탄생시켜 정주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된 어촌계 사무실을 이전 신축하여 해녀 삼촌들이 편리하게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및 탈의장을 만들어 어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증축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리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금능의 자랑인 금능해수욕장과 마을 길을 연결하는 차수로를 정비하고 유휴지를 정비해 금능 창작의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또한 금능원담축제가 진행되는 선진터에는 상하수도 시설을 설비하고 간이무대 및 야간



5 .indd 41 2023-02-20 6:11:15

안전 조명을 설치하는 등 방문객과 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마을기업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 소득증가를 도모하고 리민 휴식공간이자 문화예술인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가칭)모다드렁 문화예술센터가 신축된다.

모다드렁 문화예술센터의 경우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공간으로 금능리 홍보센터, 마을기업 금능맛차롱 판매센터, 금능리 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다. 또한 문화예술인이 언제든지 금능리를 방문해 마을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금능리에서 문화예술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리민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마케팅, 브랜드 개발, 이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전문성 있는 교육과 컨설팅으로 마을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도 있지만 개인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교육도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2022년 시작

2022년에는 2월 17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진위원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구성하고 11월 11일 임시총회를 진행, 어촌테마마을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해양수산부에 심의를 넣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더불어 리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역량강화사업 참여방법을 소개하고 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인 비전공유회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박3일 국내 선진지 견학, 실무형 리더 MBA과정을 진행 마을 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체험마을 사례를 탐방하

이창훈 추진위원장



어촌테마마을 기본계획안 관련 임시총회



5 .indd 42 2023-02-20 6:11:15



선진지견학



실무형리더 MBA 과정

는 등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문화복지 교육의 일환으로 22년에는 부녀회 풍물패 교육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2년간 풍물교육과 공연들이 중단되어 부녀회 풍물패 구성원들의 교육과 공연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올해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재개된 제13회 금능원담축제 개막식 공연을 준비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그동안의 묵혀왔던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의 전신이라고 생각하는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시인학교를 중심으로 문화가 흐르는 예술학교 사업이 진행되었다. 최금진 시인이 직접 총 4회에 걸쳐 시인학교를 진행했다. 또한 금능을 주제로 한 디카시 창작대회를 열어 리민 24명이 참여하고 최금진, 문태준 시인이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해 성황리에 창작대회를 마무리함으로써 옥빛 바다 위로 시가 흐르는 낭만 어촌 금능리의 저력을 과시하였다.

어촌테마마을의 역량강화사업은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더불어 리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부녀회 풍물패 교육



원담축제 풍물공연



5 .indd 43 2023-02-20 6:11:17



디카시 창작대회 시상식



디카시창작대회 수상작 금능리사무소 전시



라이브커머스 실습

진행하고 있다. 요즘 대세로 자리 잡은 라이브커머스 교육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이브커머스교육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생산한 작물, 사업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문구 작성부터 카메라, 조명,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이해하고 실습과정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체험이나 이론 강의가 아닌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싶은 리민들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에 따라 맞춤형 실습을 운영했다.

금능만의 특색있는 메뉴 개발 및 레시피 표준화하는 교육도 진행되었다. 금능리민을 대상으로 금능리 특산물과 선호하는 음식 등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 총 2회의 킥오프 회의를 통해 유승연 교수의 컨설팅을 받았다. 금능리 특산물인 톳, 메밀, 돼지고기, 뿔소라를 활용한 특화메뉴를 실습하였고 금능마을을 방문한 해남향토음식자원화연구회를 대상으로 특화메뉴 시연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화메뉴 컨설팅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동안 6개의 메뉴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메뉴 개발부터 상차림 체험활동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남녀노소 다 같이 참여가 가능한 교육도 진행했다. 아트마켓코디네이터 과정과 마을디자인학교는 나이 제한 없이 참여를 원하는 리민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고 어린 자녀와 부모가 함께해 호응이 좋았다.

아트마켓코디네이터 과정의 경우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리마켓들을 견학하면서 프리마켓 운영진과 만나 프리마켓 취지와 프로그램 구성 힘들었던 점과 극복과정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금능리만의 특색있

특화메뉴 개발 교육 현장



특화메뉴 시연회



5 .indd 44 2023-02-20 6:11:18

는 아트마켓을 고민하고 기획해 뿔소라 소비 촉진 행사와 프리마켓을 콜라보해 기획한 내용을 시연해 보았다.

마을디자인학교의 경우 금능마을 공간을 주민들이 디자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3년간 진행된다. 첫 해인 2022년에는 우리 마을을 둘러보고 마을 풍경을 바탕으로 타일아트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디자인학교 또한 자녀와 부모의 참여율이 높았는데 자녀와 함께 타일을 깨고 붙이면서 타일아트 기술을 익히고 금능마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애향심을 키우고 주체적인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리민들의 열정과 관심 덕분에 22년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어촌테마마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오해하는 리민들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프리마켓 뿔소라모빌 체험(위) / 아트마켓 현장 견학 - 비치코밍 체험(아래)









마을디자인학교 수업 현장(위) / 마을디자인학교 - 타일공예 작품(아래)

청부녀회 밴드와 마을 게시판, 현수막 등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리민들에게 어촌테마마을을 홍보하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더 많은 리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심하고 있다.

리민 모두의 축제가 되길

어촌테마마을은 리민 모두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앞으로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이 금능리민 가까이에 있으면서 친근하고 리민 모두가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래본다. 人·IN

5 .indd 45 2023-02-20 6:11:19

| 키 | 워 | 드 | 로 만나는 금능

정리 | **이윤영**

장수마을로 으뜸인 금능마을! 어버이날 맞이 나눔행사

매년 어버이날은 청년회와 부녀회가 금능마을 어르신들을 마을회관 한자리에 모셔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잔치를 해왔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방역지침 상 예전처럼 효 잔치 식사 대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부녀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청년회원들이 쌀 10킬로 한 포대와 밑반찬을 각 어르신 댁으로 전달해드렸다.

금능 맛차롱 상점 신제품 개발 판매 open

7월 9일(금능 맛차롱 상점)은 샌드위치와 핫도그 속에 뿔소라 토핑을 넣은 신메뉴를 개발했다. 뿔소라는 금능 해녀가 직접 금능바다에서 잡은 뿔소라로 알맹이를 삶아 얇게 썰어 만든 뿔소라 토핑이다. 씹는 식감이 좋아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인기만점이었다. 뿔소라 샌드위치, 뿔소라 핫도그, 감귤쥬스, 감귤에이드 전 단일메뉴 가격이 4,000원이고, 감귤주스나 에이드와 함께 세트로 주문시에는 7,0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제13회 금능원담축제 개최

7월 30일~7월 31일 태풍 '송다'로 많은 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능원담축제가 막을 올렸다. 금능부녀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향토음식점 부스에서 판매한 음식이 완판되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맨손잡이 물고기 체험을 신청하여 조기 마감되었다. 무대 위에서는 다양한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 밤에는 사우스카니발 공연이 끝나자마자 금능바다 위로 멋지게 분수처럼 내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에 별처럼 수를 놓으며 제13회 금능원담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22년 금능리 디카시창작대회 열려

디카시는 말 그대로 사진과 문자가 하나로 된 예술작품으로, 짧은 형상을 포착하고 그 순간 짧은 문자로 표현하는 시를 말한다. 금능리어촌테마마을추진위원회 주최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이 주관하여 9월5일 ~ 9월30일까지 금능리 관련 소재를 다룬 작품으로 금능리민으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1인 2편 가능하다. 금능디카시창작 결과는 10월 6일에 발표했다.

5 .indd 46 2023-02-20 6:11:23

금능리, 전국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금능마을이 해양수산부의 2022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해양수산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어촌의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증대,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어촌마을을 평가·선정해 어촌마을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상을 받은 금능마을은 마을주민들이 뿔소라 특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판매해 해녀들이 채취한 뿔소라 판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금능해수욕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열어 뿔소라 자숙 꼬치를 판매했고, 해수욕장 앞 계절음식점을 활용한 상설 직거래 판매장도 조성했다.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주 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뿔소라 핫도그, 뿔소라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 실적을 올린 점도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금능리사제 봉행

2022년 2월14일(월) 능향원에서 리사제가 진행되었다. 마을제는 정월 대보름이 되는 날 오전 12시경에 지낸다. 제를 지내기 전 제관들은 몸을 정갈하게 한 후 제에 참여를 해야 하며 주민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해오고 있다.

제43회 금능리민단합 체육대회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했던 금능리민단합 체육대회가 3년 만에 부활되어 2022년 9월 11(일) 제43회 금능리민단합 체육대회가 청년회·부녀회 주관으로 열렸다. 금능부녀회 풍물패의 멋진 길트기 공연을 시작으로 자조동, 자립동, 근로동, 협동동으로 나뉘어 각 동끼리 투호놀이, 윷놀이, 2인3각,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씨름 등 다채로운 경기들이 펼쳐졌고, 열띤 응원으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오늘만큼은 바쁜 일손을 내려놓고, 금능리민들이 대동단결하여 똘똘 뭉칠 수 있는 날이니만큼 리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이번 리민단합대회 최종 우승은 협동동이 차지했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환경도서관 '도서관과 플로깅' 공모전 선정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주최하고,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주관하는 〈환경도서관 '도서관과 플로깅' 공모전〉에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이 선정되어 지난 8 - 9월 동안 이와 관련된 수업 및 체험이 진행되었다. 환경생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이 공모전을 통해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우리가 만드는 금능의 푸릉바다'라는 사업명으로 해양 생태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의 바다와 자연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5 .indd 47 2023-02-20 6:11:27

2022 금능리 어촌테마마을 디카시 창작대회 수상작

일반부 대상 | 이윤영 | 한글사랑



연필 꼭 쥔 굽은 손
달팽이 지나간 곳 마다
한글 꽃이 피어나네

일반부 금상 | 권유미 | 바다가 갖고 싶을 때



해변을 산책하고 부츠를 벗자
그 안에 각각 하나씩 바다가 생겼다.
오른 금능, 왼 금능.
한 짝씩 두 짝의 바다.

5 .indd 48 2023-02-20 6:11:28

디카시란 사진과 문자가 하나로 된 예술, 짧은 형상을 포착하고 그 순간 짧은 문자로 표현하는 시

학생부 대상 | 한림고등학교 1학년 양지원 | 금능바다에서



이번 여름이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되길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학생부 금상 | 한림여자중학교 1학년 양희선 | 하늘높이



구령에 맞춰 다함께 발을 맞춘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의지를 불태운다
마음까지 하나 되는 우리는 하나

5 .indd 49 2023-02-20 6:11:28

2022 금능리 어촌테마마을 디카시 창작대회 수상작

일반부 은상 | 암행어사 | 아버지의 퇴근



퇴근하는 아버지 경운기
딸딸딸 소리에
티비를 끈다.

창밖을 보니
아버지 털털털 웃으며
나를 바라 보신다.

울아버지 경운기 소리
멀리서도
알아보네.

일반부 은상 | 고춘숙 | 동행



너
나
그리고 우리
조심스럽게 담장밖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다
때론 험한 비바람이 몰아칠지언정
결코 두 손을 놓지않을거야
마지막까지

5 .indd 50 2023-02-20 6:11:30

주최 | 금능리어촌테마마을추진위원회 주관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학생부 은상 | 제흥초등학교 4학년 양희수 | 금능지킴이



맑은 하늘 아래
오늘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비양도를
지키는 할아버지

학생부 은상 | 한림중학교 3학년 양지승 | 낙원



구름 위에는 돌고래가 뛰어다니고
그 아래는 무지개가 펼쳐있는
이곳은 금능낙원

5 .indd 51 2023-02-20 6:11:30

2022 금능리 어촌테마마을 디카시 창작대회 수상자 명단

일반부 입상자 명단

동상

백정순 | 뽄쟁이 하르방

차영옥 | 삶의 무게

문미열 | 꽃밭

입상

오미영 | 그랬으면

문성호 | 금능바당

김미복 | 길

백창석 | 폭풍전야

김정숙 | 파도

김자영 | 사랑하는 사람과



학생부 입상자 명단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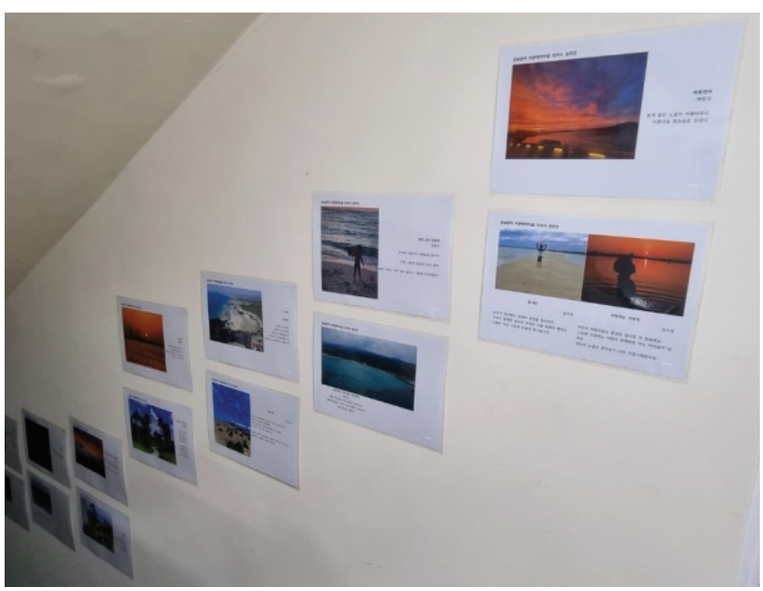
김은우 | 쉼터

장루아 | 풍경

문해성 | 아름다운 곳

입상

양태환 | 금능해수욕장



5 .indd 52 2023-02-20 6:11:30

금능리 조직도

제공 | **금능리**

이장
송문철

노인회장
박용진

운영위원장
송문철

감사
양승우

청년회장
김정협

부위원장
고석주

감사
조미혜

부녀회장
문미열

이사무장
노진영

어촌계장
홍준희

운영위원
문영남 · 양익수 · 김성진 · 고창균 · 홍한민 · 박윤성 · 한성종

자조동장
양성혁

자립동장
문원선

협동동장
고남호

근로동장
손성훈



5 .indd 53 2023-02-20 6:11:30

2022년 금능리 마을행사 일정표

정리 | **금능리**

일정	행사명	주관
1월	• 능향원 환경정비	청, 부녀회
	• 마을정기 총회	금능리
	• 어촌계 총회	어촌계
2월	• 마을제 봉행	금능리
3월	• 농업용수 정기총회	수리계
	• 톳 수확 및 판매 (~4월 말)	어촌계
	• 맛차롱협동조합 총회	맛차롱협동조합
	• 마을역량강화 교육	금능리 (한국어촌어항공단)
4월	• 영농폐기물 및 헌옷 수거	부녀회
	• 미역 공동작업 (~6월 초까지)	어촌계
	• 마을역량강화 교육	금능리 (한국어촌어항공단)
	• 임시총회	금능리
5월	• 어버이날 행사	청, 부녀회
	• 마을역량강화 교육	금능리 (한국어촌어항공단)
6월	• 마을정화 작업	금능리
	• 바다정화 작업	어촌계
	• 마을역량강화 교육	금능리 (한국어촌어항공단)
7월	• 해수욕장 안전기원제	금능리
	• 맛차롱상회 오픈	맛차롱협동조합
	• 제13회 원담축제 개최	금능리
	• 마을역량강화 교육	금능리 (한국어촌어항공단)
8월	• 마을역량강화 교육	금능리 (한국어촌어항공단)
9월	• 한림읍민 종합체육대회 참가	금능리
	• 금능리 단합체육대회	청, 부녀회
	• 마을역량강화 교육	금능리 (한국어촌어항공단)
10월	• 마을역량강화 교육	금능리 (한국어촌어항공단)
11월	• 소라 소비 촉진행사 및 프리마켓	어촌계
	• 마을역량강화 교육	금능리 (한국어촌어항공단)
	• 임시총회 (어촌테마마을 기본계획안 승인의 건)	어촌테마마을추진위원회
12월	• 김장나눔행사	부녀회
	• 경로잔치	부녀회
	• 마을역량강화 교육	금능리 (한국어촌어항공단)

5 .indd 54 2023-02-20 6:11:31

2022년 꿈차롱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일정표

정리 | **편집부**

일정	프로그램명 및 세부내용	
1월	• 즐거운 NIE 교실 (김향란 강사, 매주 수 19:30-21시)	• 시읽기 교실 (김동현 평론가, 매주 화 19-21시)
2월	• 시읽기 교실 (김동현 평론가, 매주 화 19-21시)	
3월	• 공부방 운영 (지도 한재준 학생, 매주 토 13-17시)	
4월	• 공부방 운영 (지도 한재준 학생, 매주 토 13-17시)	• 꿈다락토요학교 국악뮤지컬 (장소 제공)
5월	• 공부방 운영 (지도 한재준 학생, 매주 토 13-17시)	• 꿈다락토요학교 국악뮤지컬 (장소 제공)
6월	• 독서동아리 (최금진 시인, 매주 수 19-21시)	• 스마트폰 교육 (장소 제공)
	• 꿈다락토요학교 국악뮤지컬 (장소 제공)	
7월	• 독서동아리 (최금진 시인, 매주 수 19-21시)	• 아동 글쓰기 교실 (김신숙 시인, 매주 화 19-20:30)
	• 꿈다락토요학교 국악뮤지컬 (장소 제공)	
8월	• 독서동아리 (최금진 시인, 매주 수 19-21시)	• 아동 글쓰기 교실 (김신숙 시인, 매주 화 19-20:30)
	• 아동 역사 교실 (이윤영 강사, 매주 토·일 14-16시)	• 디카시 창작 교실 (최금진 시인, 매주 월 19-21시)
	• 환경도서관 (제주돌핀센터, 매주 목 19-20:30)	• 꿈다락토요학교 국악뮤지컬 (장소 제공)
	• 금능원담축제 부스 운영	
9월	• 환경도서관 (제주돌핀센터, 매주 목 19-20:30)	• 디카시 창작 교실 (최금진 시인, 매주 월 19-21시)
	• 아동 언어순화 교실 (홍효정 강사, 매주 화 19-20시)	• 아동 NIE 교실 (꿈차롱 강사진, 매주 수 19-21시)
	•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책잔치 참가	• 꿈다락토요학교 국악뮤지컬 (장소 제공)
10월	• 아동 언어순화 교실 (홍효정 강사, 매주 화 19-20시)	• 아동 NIE 교실 (꿈차롱 강사진, 매주 수 19-21시)
	• 꿈다락토요학교 국악뮤지컬 (장소 제공)	•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책축제 부스 운영
11월	• 아동 치어댄스 교실 (남윤아, 매주 수 19-21시)	• 꿈다락토요학교 국악뮤지컬 (장소 제공)
	• 작은도서관협회 음악회 부스 운영	• 제1회 제주시생활체육클럽배 치어리딩 대회 참가
12월	• 작은도서관협회 자체평가회 참가	•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북큐레이션 참가
	• 『금능인』 5호 발간	



편집후기

폭설이 내려 지붕에도 마당에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지요. 하얀 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금능인 창간호부터 5호까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흔적을 조금씩 남기며 금능마을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지요.
어릴 적 서울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제주도에 귤밭을 사게 되면서 금능마을에 오게 되었지요. 버스정류장에 적혀있는 금능이라는 글자는 무척 낯설었는데, 현재는 금능 남자를 만나 금능인이 되었고, 금능 며느리가 되어 금능에 매력에 퐁당 빠져버렸지요. 금능이 궁금하세요? 금능마을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금능인 소식지를 읽으면 금능이 보입니다.

편집위원 **이윤영**

금능인은 1년에 한번 발행되지만 한권 한권이 모아져서 금능 마을지 역할을 하게되는 것 같다. 그러기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서 부담이 되기도 한다.
금능을 알리고 금능의 또 하나의 자랑이 될 때까지 금능인은 나에게는 도전이다.

편집위원 **한명희**

갑작스럽게 "금능인 5호"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무척 기쁘게 생각 했는데 참가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한 금능어부회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금능어부회 이상능 총무 도움을 받은 내용들로 담았으니 좋게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 **차영옥**

2022년 다섯번 째 금능인을 엮습니다. 5년 전의 금능과 지금의 금능은 변한 듯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시간의 신비를 매년 담아내는 이 일이 해가 갈수록 더욱 즐겁습니다. 내년의 금능과 5년 후의 금능, 또 10년 후의 금능이 궁금해집니다. 그 설레는 기대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집위원 **홍임정**

언젠가 마을 해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늦은 시간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가는데, 자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던 누군가의 눈물이 전염병처럼 여기저기에 퍼졌고, 저 또한 참고 참다가 지독히도 고요했던 자동차 안에서 끝내 봇물처럼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몇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어쩌 그 지난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기록하면서 준비운동 없이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금능인 5호〉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없이 준비운동을 해야만 했던 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양민숙**

.indd 56 2023-02-20 6:11:32